

내일부터 여름철 폭염 대응체제 가동

도교육청, 전남 TF 운영

올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폭염으로 인한 학생과 교직원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전북도교육청이 여름철 폭염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3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폭염 대비 전남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여름철 폭염 대비 자체 추진 계획을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폭염특보는 일 최고기온이 33°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폭염주의보, 일 최고기온이 35°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폭염경보가 발령된다.

TF팀은 정책공보관 학생안전관리단과 학교교육과 장학관·장학사·주무관 등 12명으로 구성돼 재난대비 업무 총괄, 교육지원청 폭염대비 업무 지원, 휴업·등하교시간조정 등 교육지원청 및

학교 확인점검을 맡게 된다.

특히 폭염특보 발령시 해당 지역 교육 행정기관장 및 학교장은 등하교시간 조정 및 휴업 등을 신속하게 결정해야 하고, 결정 사항을 학생·학부모에게 신속히 안내한 뒤 상급기관에 보고하도록 했다.

학사운영 조정은 전남 하교시간 1시간 전까지 결정하는 것을 권장하며, 불가피한 경우 급급적 당일 등교시간 2시간 전까지 결정해 안내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쾌적한 냉방기 사용을

위해 필터청소 및 오작동 확인 등 학교별 사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폭염특보 발효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냉방기 기능을 통해 실내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폭염 빈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폭염 대응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면서, "학생과 교직원 등은 폭염발생시 행동요령을 사전에 숙지하고, 자체 계획을 수립해 대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호원대 호텔외식조리학과 학생들이 최근 '2019 대한민국 국제요리&제과경연대회'에 출전해 참가학생 전원이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호원대, 국제요리대회 참가학생 전원 수상 '쾌거'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호텔외식조리학과 학생들은 최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된 '2019 대한민국 국제요리&제과경연대회'에 출전해 참가학생 전원이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경연대회는 단일 요리대회 중 전국 최대규모로 약 5천여명이 참가했으며, 호원대 호텔외식조리학과는 약선요리, 푸드카빙, 창업요리, 라이브경연 총 4개 부문에서 경연을 펼쳤다.

호원대 호텔외식조리학과 4학년 정숙경 민화도학생은 약선요리 부문에서 대상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1학년 이예림 학생은 푸드카

빙 부문에서 금상과 서울시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더불어, 3학년 이인숙 위탁학생은 창업요리 부문에서 금상을 받았고, 4학년 최대웅 학생과 함께 3학년 고보성, 전유수, 주형준, 박지현 학생은 한 팀으로 라이브경연 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류무희 호텔외식조리학과 학과장은 "참가학생들이 방과 후에 열심히 고민한 메뉴 레시피 구성과 스타일링 감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자력으로 준비하고, 수정과 연습을 거듭해 얻은 성과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밀도높은 현장실습은 취업의 지름길!

전주비전대, 예비 하림인 OT 진행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하림에 합격한 예비 하림인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지난해 10월 진행된 채용 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을 위한 하림과 전주비전대학교와

의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결과다.

그동안 전주비전대학교는 하림이 요청한 인재 육성을 위해 학생들의 적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림은 직무에 맞는 현장교육 및 취업 연계 지원을 계속해 왔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차례 실무협의, LCS(종합성격검사)검사, 하림 맞춤형 특별반 운영, 취업교육, 전공공

육, 현장견학 및 현장실습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주비전대학교는 밀도 높은 현장실습과 기술연수 등을 받게 해 곧바로 산업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실무능력을 배양하는데 모든 교육과정의 초점을 맞춘 것이 하림에 많은 인원이 합격하는 좋은 성과를 가져왔다고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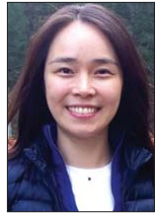
하림 유기호 전무는 "하림에서 채용을 원하는 분야인 생산현장 기술전문 분야와 현장IT운영·생산지원분야에

서 재교육이 필요 없을 정도로 실무에 강한 능력을 갖췄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승희 취업지원처장은 "전공 외에 인관관계, 소통방법, 봉사활동 등 인성교육에도 힘을 쏟고 있다면서, 이는 성실함과 기본적인 직장예절을 갖추고 있는나이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며, "전주비전대학교는 앞으로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을 할 예정이다"고 계획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송미정 교수,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 위촉



전북대학교 송미정 교수(자연대 지구환경과학과)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의(위원장 반기문) 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에 위촉됐다. 임기는 2년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른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정당·시민사회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범국가적 기구로 지난달 말 출범했으며, 중국 등 관계 국가들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다각도의 정책

적 대안을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지난 2월 15일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게 위해 출범한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으로도 위촉된 바 있는 송 교수는 이 활동들을 통해 국내 미세먼지 생성 기작, 고농도 미세먼지 특성 등을 규명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편, 송 교수는 취리히 공과대학에서 대기과학 분야 박사 학위를 받은 미세먼지 전문가로 대기 중 미세먼지의 생성 메커니즘 규명, 물리화학적 성질에 관해 선도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분야 상위 국제학회지 및 인용지수 1% 이내의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오늘 장애학생 e-페스티벌 대회 개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오늘 전북교육연구원에서 장애학생 e-페스티벌 대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전북 사단법인 장애인재활협회 재활지원센터와 공동주관으로 지역 장애학생의 IT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기능경기대회를 통해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자신감과 의욕을 고취시키며 능력 확대를 통한 취업과 사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 19개 특수학교(급) 초·중·고·전공과 학생, 학부모 및 지도교사, 자원봉사자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 경진대회 (eLifeMap 인터넷정보검색, eTool챗린지 엑셀·파워

포인트 문서작성) ▲e스포츠대회 (마구마구, 오펜로, 모두의 마블) ▲eDesign챗린지(포스터 제작) 등 총 3개 분야의 정보경진대회와 11개 종목의 e스포츠 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참가자는 상장과 함께 상금이 수여되며, 오는 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2019 전국장애학생 e페스티벌' 전북 대표선수로 본선 대회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실력을 겨루고 능력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결과보다 과정을 즐기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학생들의 IT활용 역량을 키우고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박물관, '오로지 오롯한 고을, 완주' 특별전 성료

국립전주박물관(관장 천진기)과 완주군(군수 박성일)은 특별전 '오로지 오롯한 고을, 완주'를 기념해 진행된 사진 공모전이 지난 22일 성황리에 마쳤다고 전했다.

이번 사진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 중 총 8작품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대상은 이호연씨의 '아름다운 민경강', 김정훈씨의 '민경강의 어부와 딸', 양석씨의 '맑고 푸른 민경강의 전경'이 각각 최우수상을 받았다.

대상을 수상한 이호연씨는 "수상한 것도 기쁘지만 앞으로 우리 지역의 보물인 민경강과 그 자연 환경이 더



욱 사랑받길 바라며, 이번 완주전이 성공리에 개최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모전은 전문가 점수와 일반 관람객 점수를 합산해 심사했는데, 800여 명의 관람객들이 투표에 참여해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공모전이 될 수 있었다.

수상작들은 국립전주박물관 특별전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10년의 발자취 되짚다

전북대 공공인재학부 10주년 기념식 개최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학부장 강문경)가 30일 학부 청담 10주년 기념식을 갖고 공공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달려온 지난 10년의 발자취를 되짚고 미래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선희 교학부총장과 서거석 전 총장, 강문경 학부장을 비롯한 학부 교수와 학생, 동문 등이 참석해 학부 설립 10주년을 축하했다.

공공인재학부는 2009년 자율전공학부로 설립돼 2013년 공공인재학부로 명칭을 변경한 이후 공공정책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융·복합 교육을 통해 글로벌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학생들이 로스쿨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프리 로스쿨(Fre Law Stud) 프로그램과 1학년 때부터 행정고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정고시 무한도전 프로젝트를 등 재학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그 결과 재학생들의 로스쿨 진학 과 고시, 공직 진출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등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비약적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문경 공공인재학부장은 "지난 10년간 이룩한 학부발전의 밑거름 삼아 이제 20주년을 향한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기념식을 갖게 됐다"면서, "공공인재학부 동문과 재학생들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선희 교학부총장은 축사를 통해 "공공인재학부가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장을 한 것은 교수님들과 학생, 그리고 학부 동문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학생들이 공공 부문에서 글로벌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할 유능한 융·복합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